

농수산업 발전(農水産業 發展)의 세대적(世代的)인 길잡이

李 昌 福

우리가 갖고있는 천연기념물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것은 아직 천연기념물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속리산의 망개나무와 진천의 미선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연수명을 지킬 수 없이 사라져버렸다.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법이 있지만 아직 우매한 농민들이 성황목이나 성황림에 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즉 후자의 경우는 나무 자체가 법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전자에 있어서는 나무와 법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농용수의 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때로 하늘을 쳐다보며 기우제를 지내는가 하면 오랜 세월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통하여 어떤 나무의 꽃피는 모습을 보고 풍년의 꿈을 남달리 수사하는 농민들도 있다. 쪽배를 타고 거센 파도를 헤치며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들이 마을 옆 성황림을 찾아가서 자시 나뭇대로의 행운과 풍어를 빌고 있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고기떼를 끌어들이는 어촌림(漁村林)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파괴하고 있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의 선조들은 농민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항시 묘한 방안을 안출하였다. 풍수설(風水說)을 내세워서 방풍림(防風林)을 설정케 하고 설치된 방풍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나가 적어도 그 당시에 있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전설을 고안하여 후손들에게 전하였다. 산림법이나 문화재 보호법이 없어도 이러한 나무나 숲이 오늘까지 잘 보존되어온 것은 전하여지는 전설의 힘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농수산업과 관계되는 것을 추려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벼농사의 충실한 길잡이 이팝나무 (*Chionanthus retusus* Lindley)

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고장의 농민들을 이의 꽃피는 모습에 대하여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 대대로 벼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모판을 만들 때마다 마을 앞에서 자라나는 이팝나무의 꽃이 피곤하였으므로 그의 꽃피는 모습이 머리속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 꽃이 활짝 피는 해에 풍년이 들었고 시름시름 피거나 잘 피지 않았을 때에는 흉년이었음도 어느새 깨닫게 되었다. 80가까이 된 한 노인은 마을 앞의 늙은 이팝나무를 가리키며 자가 인생에 있어서 한번도 이러한 사실에 어긋난 때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 나무는 이팝나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나무이며 천연기념물 제36호로 이미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락에서는 이 부락을 지켜오는 나무라고 믿으면서 정성껏 보호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심해군 이북면 신천리의 이팝나무와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져왔다. 전라남도 승주군 송광사(松廣寺)의 이팝나무

는 그의 꽃이 필 때가 되면 환경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 같으나 몇 년 전 죽어버렸다. 이팝나무의 하얀 꽃은 우리 나라에 있었서는 일부 농민들이 알고 있을 따름이지만 서양에 있어서는 그의 관상적 가치가 이미 알려진 지 오랜 듯하다.

이팝나무란 이름의 내력과 전설의 근거

이팝나무의 속명(屬名)인 치오난 두수(Chionanthus)란 말은 라틴어의 Chion (흰눈이란 뜻)과 anthus (꽃)의 합성어로서 흰 눈 같은 하얀 꽃을 표현한 것이다. retusus란 꽃 잎의 끝이 때로 약간 파진 것처럼 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쳐진 것 같다. 영어로는 Fringe tree라고 하며 가늘고 하얀 꽃잎의 특색을 취하여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솔을 연상한 듯하다.

우리가 부르는 이팝나무는 이 꽃이 피는 계절이 입하(立夏)이므로 입하목(立夏木)이라고 쓰기 시작한 듯하며 아직도 입하나무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흰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얀 쌀밥을 담뱃 담아 놓은 것 같을 뿐 아니라 이 나무의 꽃이 만발되면 벼농사의 풍년이 옴으로 인하여 어느덧 입하나무가 이팝나무 (쌀밥이라는 뜻)로 변하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큰 나무를 살펴볼 때 농민들이 이 나무의 꽃피는 모습을 보고 벼농사의 흥풍을 접쳐온 것은 식물학적 견지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즉 대개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될만한 크기에 도달한 나무는 시냇물가에 서 있거나 수분의 공급을 받기 쉬운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나무가 순조롭게 자라는데 있어서 다량의 수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것처럼 풍성한 꽃이 달리려면 꽃피는 계절에는 더욱 더 많은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에는 이 나무의 꽃은 활짝 필 수 있겠으나 수분이 충분치 못할 때에는 이 나무의 꽃이 한꺼번에 피지 못하고 시름시름 피거나 제대로 피지 못할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제대로 벼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흠족한 물이 첫째 조건이므로 꽃이 활짝 피는 해에 있어서는 못자리의 물은 충분할 것이므로 농민들은 활개를 펴고 모판에서 풍년가를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팝나무와 비슷한 종류는 북아메리카의 남쪽과 동아시아에 3종이 자라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1종 1변종이 남쪽에서 자라지만 바닷가를 따라서는 서쪽에 있어서 경기도의 앞바다까지 올라오고 동쪽에 있어서는 포항 근처까지 자란다. 그러나 사람이 심은 것은 경기도 내륙지방에서도 훌륭히 자라고 있다.

식물학적 특징

낙엽교목이며 새가지는 회갈색으로 어릴 때 약간의 잔털이 있다. 잎은 마주 달리고 타원형, 난형, 난상 타원형이거나 도란형이며 끝이 뾰죽하거나 둔하게 생기고 때로 끝이 약간 파지며 밑부분은 넓은 설저 또는 원저로서 길이 3~15cm, 넓이 2.5~6cm이다.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윤채가 나며 흔히 엽맥 위에 털이 있고 뒷면에서는 엽맥의 밑부분에 갈색 털이 있다. 잎 가장자리는 거의 밋밋하지만 어린 나무와 생장이 왕성한 가지에 돋은 잎에는 겹으로 된 톱니가 있다. 꽃은 5월의 입하 계절을 전후하여 아까시 나무 등과 같이 피며 열매는 9월에 익는다. 화서(花序)는 새가지 끝에 달리며 길이 6~10cm로서 털이 없고 밑에 잎이 달린다. 가지가 갈라지고 잔가지의 길이 7~10mm로서 환절이 있다. 꽃받침은 4개로 깊게 갈라지고 길이 2~3mm로서 각 열편은 끝이 뾰죽한 피침형이다. 꽃잎도 4개이며 길이 12~20mm, 넓이 3mm 정도로서 밑부분은 합쳐져서 통처럼 되고 길이는 꽃받침 길이와 같거나 1.5배쯤 되며 전

체가 흰빛이다. 수술은 2개이며 통부에 붙었고 수술대는 짧다. 수꽃에는 암술이 퇴화되었다. 씨방은 2개의 방으로 되었으며 암술대는 짧고 타원형의 열매로 발달한다. 익은 열매는 길이 1~1.5cm로서 검푸른 빛이 도는 핵과이며 길이 흰 가루로 덮혔다. 이와 비슷하지만 잎은 피침형이며 꽃잎의 넓이 1~1.5mm인 것을 긴 잎 이팝나무 (ver. coreana Nakai)라고 하며 제주도에서 자란다. 번식은 종자로서 하며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으므로 종자가 달리지 않는 것은 수나무이다.

지금까지 커다란 나무로 알려졌던 것은 17주이었으나 다음의 8주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높이에 있어서는 거의 차가 없으나 이미 죽어버린 송광사의 이팝나무가 높이 19.7m로서 가장 컸었는데 이는 그의 둘레가 커다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컸었다고 보며 가지의 발달은 다른 고립목(孤立木)에 비하여 빈약하였다. 가슴높이의 둘레는 차이가 심하여 3 이상 되는 것은 4주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다.

제 36호 쌍암면의 이팝나무

소재지 : 전남 승주군 쌍암면 평중리 산 35번지

소유 : 민유, 당산목이라고 하지만 부락민의 정자목 구실을 하고 있다.

전설 : 꽃이 활짝 피면 풍년이 오고 시름시름 피거나 피지 않을 때에는 흉년이 든다. 1971년은 만개하였다.

나무의 크기 : 높이 16.5m, 가슴높이의 둘레 4.46m로서 1.96m 높이에서 3개로 갈라졌으며 각 가지 밑부분의 둘레는 2.6m, 2m, 및 1.17m 이다. 옆에 있는 느티나무와 더불어 좋은 정자목이다.

성 : 수나무

지정사유 : 노거수

지정 연월일 : 1962년 12월 3일.



위 치 도

위치도



쌍암면의 이팝나무

제185호 김해 신천리의 이팝나무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군 이북면 신천리 484번지

소유 : 공유(도로 및 하천부지)

나무의 크기 : 높이 15m, 높이 1.2m에서 2개로 갈라졌으며 1개는 밑부분의 둘레가 3.5m로서 1.98m 높이에서 다시 3개로 갈라져서 언덕 위의 집들로 뺐었고 다른 가지는 밑부분의 둘레가 1.7m로서 시냇물을 지나서 맞은 편 샘위로 뺐었다.

성 : 암나무

지정사유 : 노거수

지정 연월일 : 1967년 7월 11일

전설 기타 : 이 부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샘이 바로 이 나무 밑에 있다. 12월 말에는 온 부락민이 합심하여 이 샘에 치성을 들인다. 지방말로 "용왕 먹인다" 라고 하며 이 나무는 신목(神木)처럼 취급되며 꽃피는 모습에 따라 흥풍을 점치고 있다. 1971년은 만개하였다.



제23호 양산 신전리의 이팝나무

위치도

제 23호 양산 신전리의 이팝나무

소재지 : 경남 양산군 상북면 신전리 196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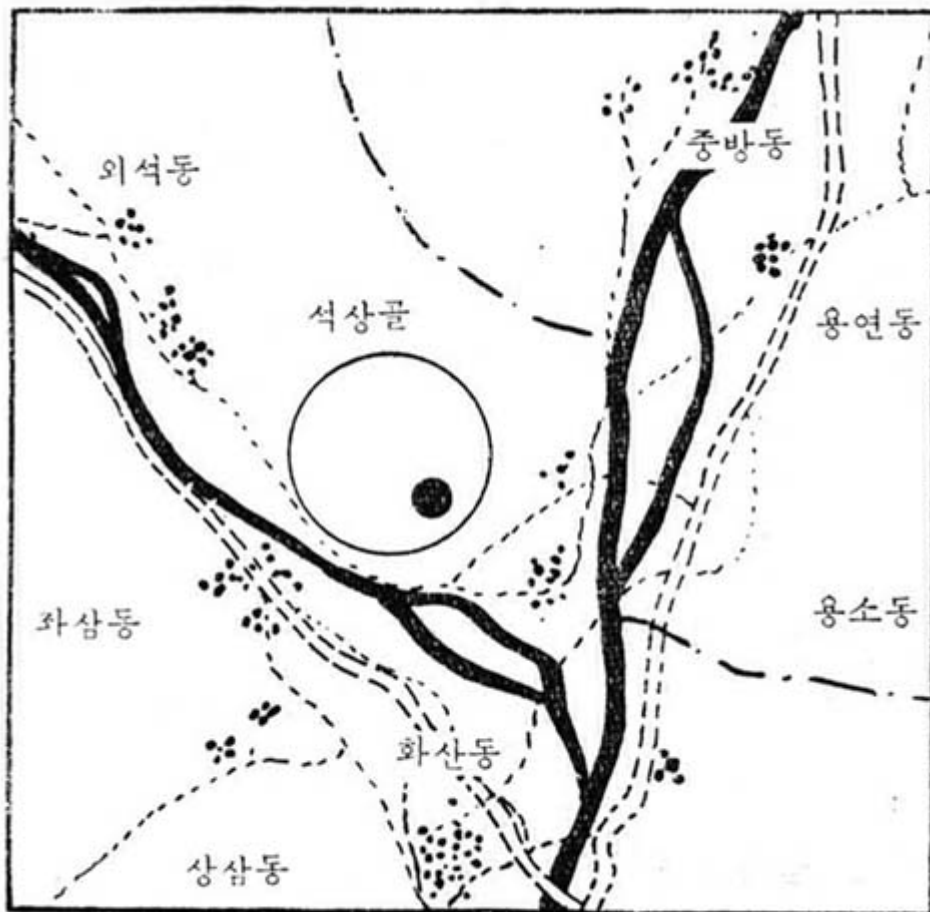
소유 : 공유

나무의 크기 : 높이 12m, 가슴높이의 둘레 4.15m 이며 지상 1.2m 거리에서 2개로 갈라졌으며 각 밑부분의 둘레는 2.46m와 2m이다. 충해가 있어서 꽃은 시원치 않게 피었다. (1971).

지정사유 : 노고수

지정 연월일 : 1971년 9월 13일

전설 기타 : 통도사를 지나서 내려오는 양산천과 영추산 계곡에서 흐르는 냇물이 합쳐지는 삼각지 모서리 근처에 자리 잡고 부락 서쪽의 논밭 거의 밭 가운데 한 그루의 팽나무와 같이 서 있다. 동쪽에는 양산천을 건너 바로 우뚝 솟아 오른 원오산 줄기에 봉화대의 옛터가 있고 남쪽은 바로 내를 건너 옛날의 황산역(黃山驛)과 위천역(渭川驛)이 있었던 곳이므로 상당히 오랫동안 신목(神木)으로서 보호를 받아온 것 같다. 지금은 매년 정월 보름날 부락민의 행복을 빌면서 치성을 들인다고 한다.



위 치 도

위치도

제 235호 광양 유단공원의 이팝나무

소재지 : 전남 광양군 광양읍내의 유단공원

소유 : 공유

나무의 크기 : 높이 17m, 가슴높이의 둘레 3.1m로서 2.5m 높이에서 2개로 갈라졌으며 각 밑부분의 둘레는 2.3m와 2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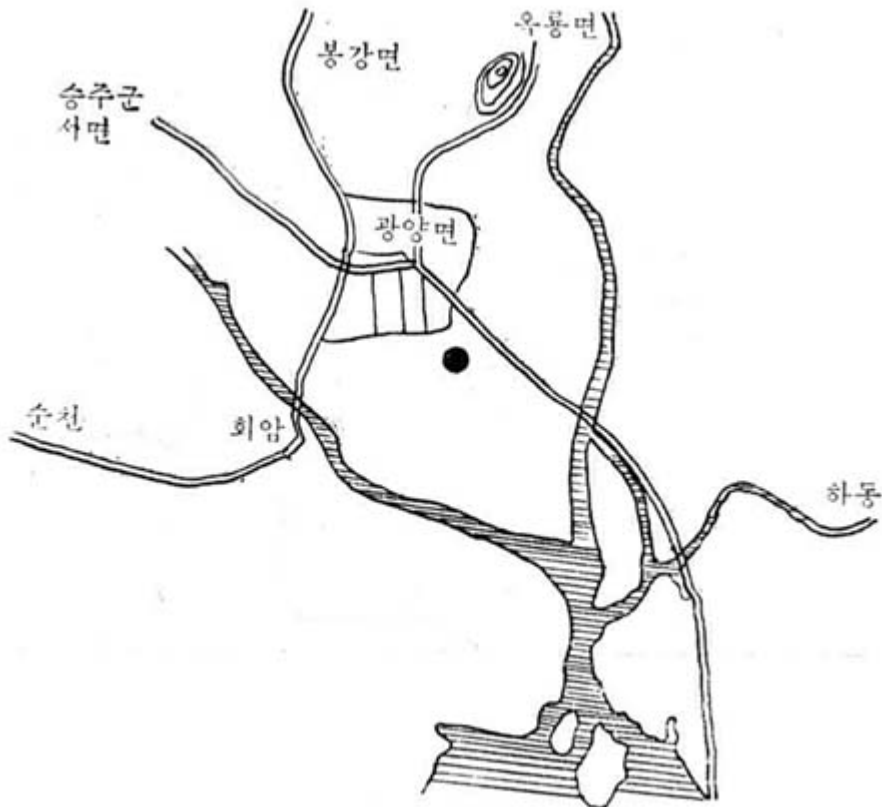
지정사유 : 노거수

지정 연월일 : 1971년 9월 13일

전설 기타 : 현재의 유단공원은 이조(李朝) 때에 광양읍성(光陽邑城)을 쌓으면서 해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었던 것이다.

광양읍성은 없어졌어도 숲만은 남아있으며 지형적인 허점을 보완하는 숲으로서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는 방풍림의 역할을 하다가 시민의 공원으로 되었다. 나무의 크기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에서 넷째이지만 싱싱한 모습에 있어서는 첫째로 손꼽을 만하다.

다음 이팝나무들은 그의 크기에 있어서 훨씬 떨어지는 것들이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위 치 도

위치도

제 183호 고창 중산리의 이팝나무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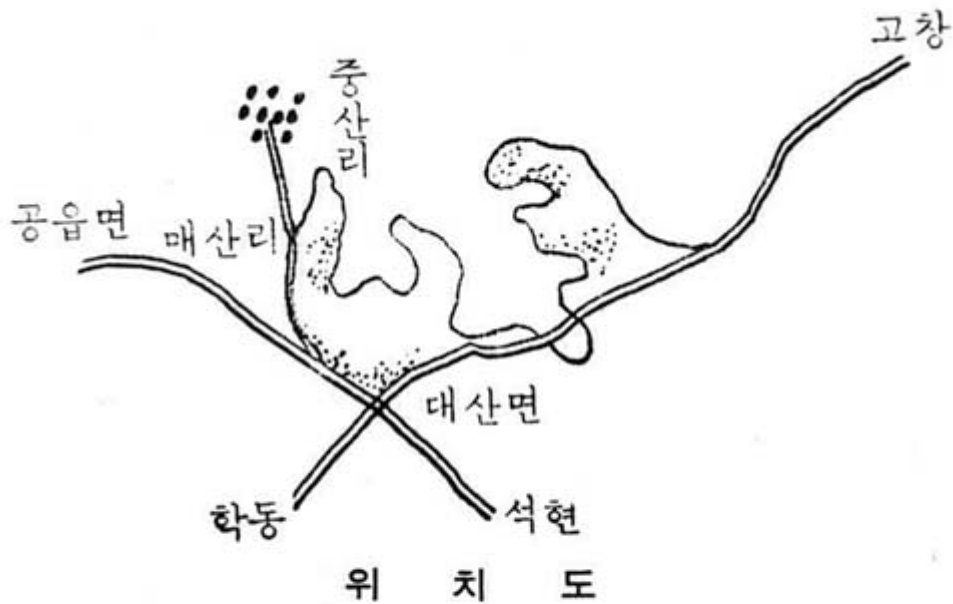
소유 : 민유

나무의 크기 : 높이 12m, 가슴높이의 둘레 1.16m 이며 높이 1.43m에서 4개로 갈라졌으며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중에서 가장 작은 나무이다.

지정사유 : 노거수

지정 년월 : 1967년 2월 11일

전설 기타 : 부락 앞의 낮은 곳에서 자라는 고립목이며 특별한 전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 186호 양산 석계리의 이팝나무

위치도

제 186호 양산 석계리의 이팝나무

소재지 : 경남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 484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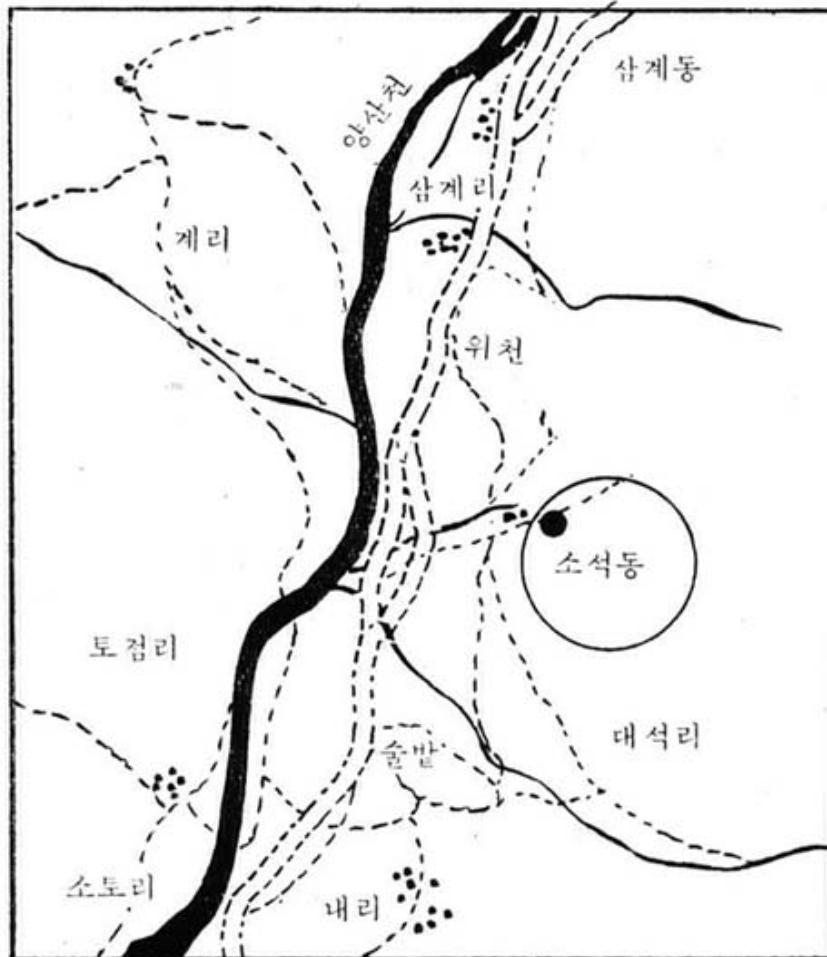
소유 : 공유(하천부지)

나무의 크기 : 높이 12m, 지면의 둘레 2.6m로 서 밑에서 2개로 갈라져서 1개는 고추 자라고 가슴높이의 둘레가 1.75m이다. 1개는 넷가를 향하여 비스듬히 뻗었으며 69cm 높이에서 다시 2개로 갈라져서 1개는 넷물위로 뻗었고 1개는 반대쪽으로 뻗었으며 갈라진 밑부분의 둘레는 1.3m이다. 수관의 지름은 17m 내외이며 관상적 가치가 풍부하다.

성 :

지정사유 : 노거수

전설 기타 : 이 부락 정씨(鄭氏)의 선조께서 100여년 전 뒷산에서 캐어다 심었다고 하며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보호하고 있다. 수령은 15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바로 밑에 늪은 푸조나무가 있다. (관리자 정진근)



위 치 도

위치도

제 187호 부산 양정동의 이팝나무

소재지 : 부산 직할시 부산진구 양정동 20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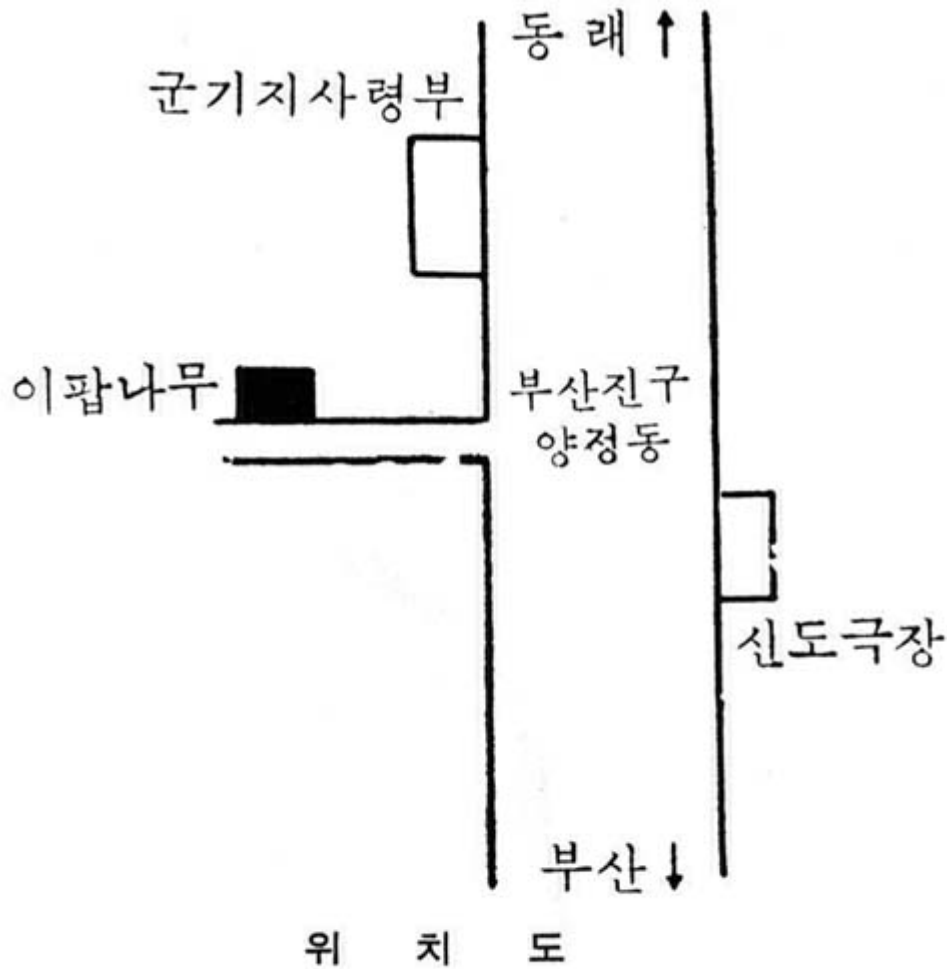
소유 : 민유(돈암 모방사장, 이상은)

나무의 크기 : 높이 11m, 가슴높이의 둘레 1.89m로서 2.5m높이에서 가지가 갈라졌다. 수관의 지름은 15m이며 옆에 늪은 팽나무가 있다.

성 : 숫나무

지정사유 : 노거수

전설 기타 : 개인의 정원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특수한 예이며 벌레의 해가 심하여 꽃이 잘 피지 않았다(1971). 수령은 40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옆에 서있는 나무 등으로 미루어 자연생이었던 것이 남은 것 같이 생각된다.



제 214호 진안 평지리의 이팝나무

위치도

제 214호 진안 평지리의 이팝나무

소재지 : 전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035의 2번지

소유 : 공유

나무의 크기 : 마령 초등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 있으며 암나무와 숫나무의 13주가 모여서 자란다. 높이 10m 내외로서 가슴높이의 둘레는 88cm에서 2.1m 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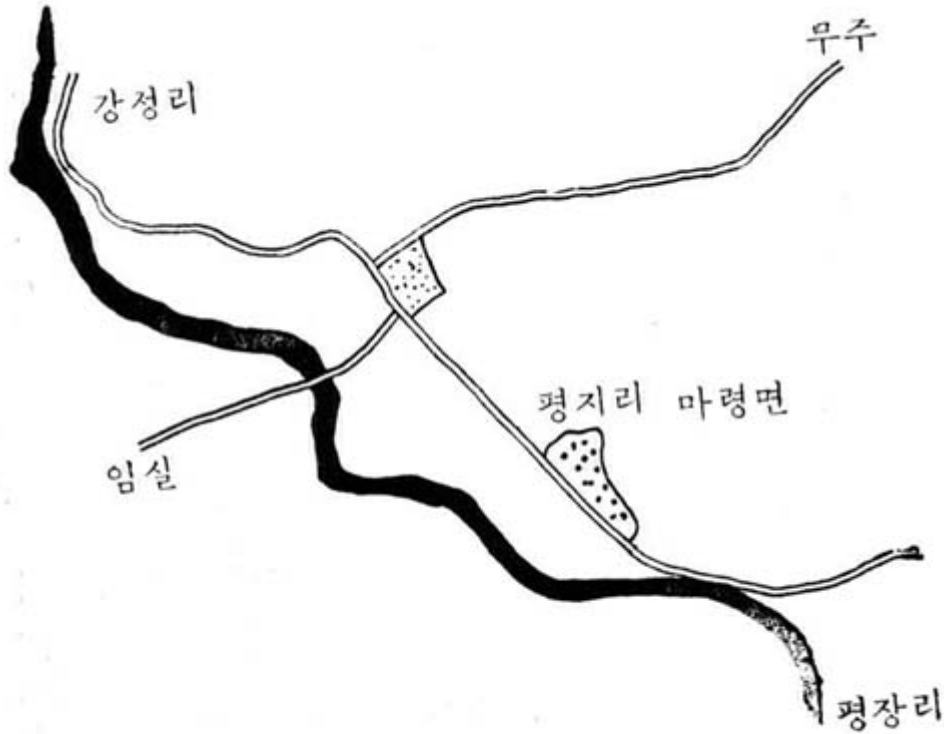
성 : 암나무와 숫나무

지정사유 : 노거수

전설 기타 : 이 지방에서는 이팝나무가 자라는 곳을 아거사리라고 부르며 어린애의 시체를 묻던 곳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나무들이 보호되어 온 것 같으며 현재에는 마령 초등학교의 운동장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학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문화재로 지정된 것 이외에 가슴높이의 둘레가 2m 이상 되는 것이 있다. 전남 광양

읍 용광리에서 자라는 이팝나무가 이의 예이며 가슴높이의 둘레 2m로서 높이 1.97m에서 2개로 갈라졌으며 각 밑부분의 둘레 1.42m와 1.41m이고 이 부락 앞의 모과나무와 더불어 신목으로 되어 있어 잘 보호되고 있다. 창녕 읍내에 있는 석빙고 옆에서 자라는 이팝나무도 이와 비슷한 크기이며 기왕에 지정된 작은 나무들은 이팝나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았던 때에 지정된 까닭이다.



위 치 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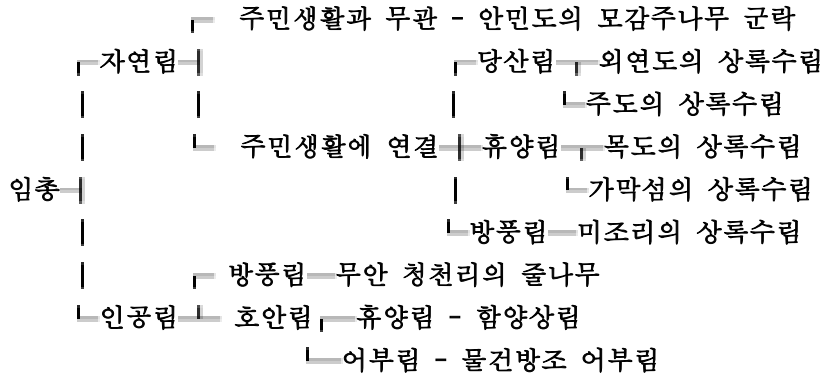
2. 어업 발전의 길잡이 어촌림(漁村林)

바닷고기도 강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으스스한 곳을 좋아한다고 한다. 따라서 바닷가엔 숲이 있을 때에는 이 숲의 그림자가 멀리 해면을 통하여 던져짐으로 고기 떼는 이 그림자 속으로 모여든다고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서 가꾸는 숲을 어부림이라고 하여 연안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이 장려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중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진 것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바닷가에 자리잡은 물건방조어촌림(勿巾防潮漁村林)이다. 뿐만 아니라 각처에 산재한 많은 임촌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농업발전에 이바지하여온 방풍림(防風林)과 호안림(護岸林)까지 합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다음 분류를 시도한 것은 설명하는데 편하도록 만든 것이며 특별한 근거는 없다. 첫째로 그의 성립에 있어서 자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자연림에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고 후자는 시초는 시초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다. 모두 풍수설을 내세워서 지형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연림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

는데 안민도의 모감주나무 군락은 주민들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전된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자리잡은 모감주나무의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므로 하나의 관목림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산림이나 휴양림 등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현금까지 잘 보호되어 왔다.

임종의 일람표



외연도와 주도의 상록수림 중앙에는 각각 당이 있으므로 성황림으로서 남아 왔음을 알 수 있다. 목도에는 반야암이라는 암자가 있어 이를 지켜온 듯하며 가막섬에는 아무 흔적도 없으나 마량 주민들이 항상 지켜보는 바로 앞바다에 있으므로서 쉽사리 도별 당하지 않은 듯하다. 미조리의 상록수림은 그의 방풍적 효과를 기리 보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설의 효과로서 잘 보전되어 온 것이라고 보며 각각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50호 물건 방조어촌림 (勿巾 防潮漁村林)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 12번지

소유 : 국유

임상(林相) : 바닷가에 따라서 길이 1,500m, 넓이 30m 내외로서 임관의 높이는 10-15m이며 다음과 같은 나무로서 구성되어 있으나 근래에 와서 숲 안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며 창고를 건축하는 등 약간 임상을 파괴시켜 가는 경향이 있다.

임관의 윗층을 차지한 것은 팽나무, 푸조나무, 상수리나무, 참느릅나무, 말채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무환자나무와 아까시나무 등 겨울 동안 잎이 떨어지는 수종과 상록수인 후박나무 등이며 산딸나무, 때죽나무, 가마귀베개, 소태나무, 구지뽕나무 등의 낙엽수와 상록수인 무른나무가 뒤따르고 모감주나무, 광대싸리, 길마가지나무, 박쥐나무, 가마귀밥여름나무, 백동백나무, 생강나무, 검양웃나무, 쫄레나무, 초피나무, 갈매기나무, 윤노리나무, 쥐똥나무, 누리장나무, 붉나무 보리수나무, 예덕나무, 두릅나무, 명꽃나무, 화살나무등의 낙엽 관목류가 밑을 차지한다. 그 사이에는 인동넝쿨, 담쟁이덩굴, 새머루, 줄딸기,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배풍 등 덩굴식물과 마삭줄과 송악 등 상록성 덩굴식물이 이리 저리 엉키어 있다.

전설 : 200여년 전 이 숲의 일부를 벌채하자 이 부락에는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어 극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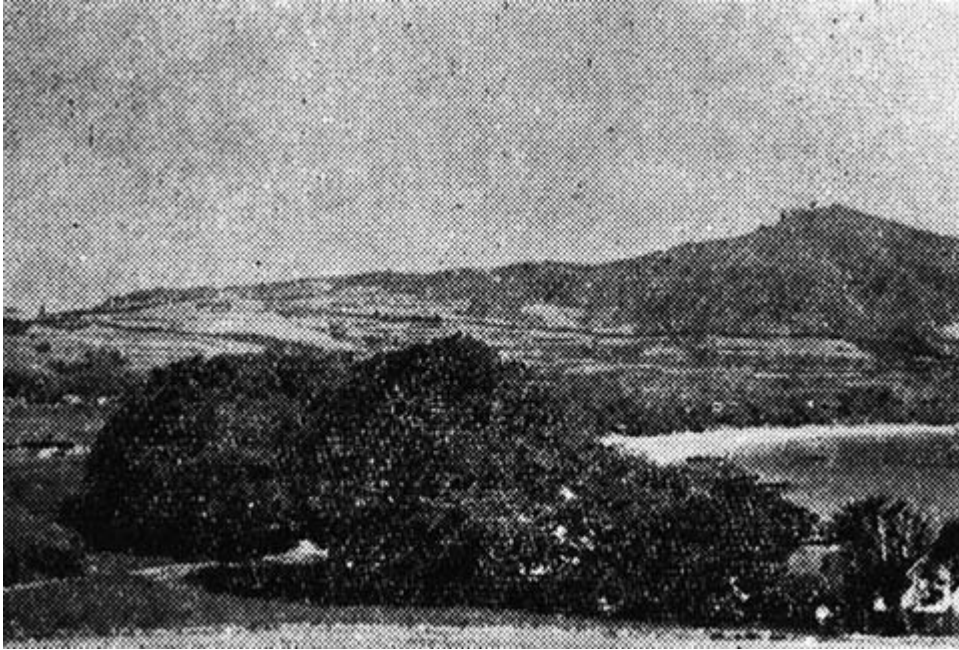
빈곤에 빠졌던 이 부락 선조들의 경험담을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이 숲이 없으면 이 부락이 망한다고 전하여 왔다.



위 치 도

위치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이 숲이 바닷바람을 차단하여 농작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바다 쪽에 숲의 그림자를 던짐으로서 많은 고기떼가 모여들도록 만드는 어부림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따라서 물건부락은 남해도에 있어서 첫째의 부유한 부락으로 발전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숲은 이 부락의 풍치림이 되어 있고 어부들의 좋은 작업장인 동시에 부락민의 휴양처가 되어 있다.



물건방조 어부림

제 154호 함양상림
(咸陽上林)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상동

소유 : 국유 및 민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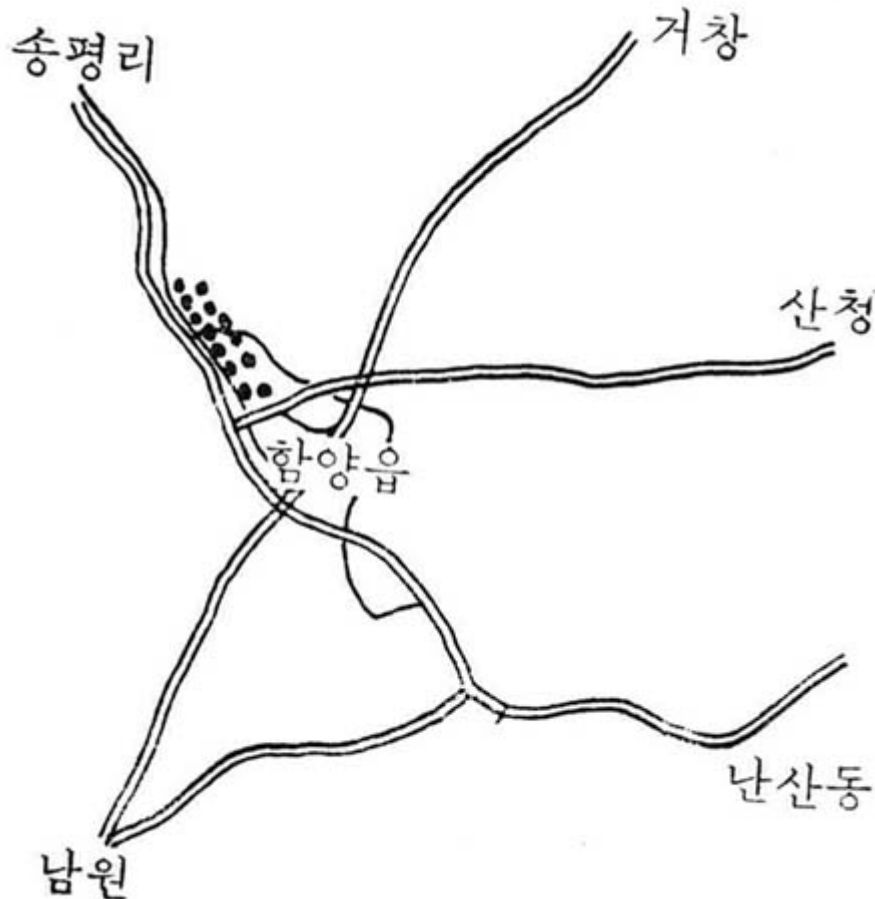
임상 : 소나무, 측백나무 및 노간주 등의 나자 식물을 비롯하여 임관(林冠)의 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나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서어나무, 까치박달, 밤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상수리, 졸참, 갈졸참, 떡갈나무, 참느릅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잔털벗나무, 벗나무, 야광나무, 아까시나무, 다릅나무, 회화나무, 쉬나무, 고로쇠, 좁은단풍, 신나무, 은백양, 감나무, 고욤나무, 말채나무, 물푸레나무, 이팝나무, 참오동나무 및 물갸나무

밑층을 차지한 종류로는 개암나무, 백동백, 좀깨잎나무, 구지뽕나무, 산뽕나무, 고광나무, 국수나무, 산딸나무, 복사나무, 윤노리나무, 콩배나무, 자귀나무, 조록싸리 풀싸리, 참싸리, 싸리, 산초, 사람주나무, 붉나무, 개웃나무, 고추나무, 화살나무, 회잎나무, 보리수, 키버들, 능수버들, 갯버들, 진달래, 산유수, 노린재나무, 쪽동백나무, 쥐똥나무, 작살나무, 누리장나무, 병꽃나무, 백당나무, 털썩나무 등이 있고 명석딸기, 복분자딸기, 짚레, 칩, 노박덩굴, 새머루, 왕머루, 개머루, 가마귀머루, 담쟁이덩굴, 인등덩굴, 계요동, 청가시덩굴 및 청미래덩굴이 이리저리 엉켜 있고 때로는 박태기, 배롱나무, 탕자나무 및 오죽 등도 보인다.

전설 : 함양읍 서쪽을 흐르는 냇쪽에 자리잡은 호안림(護岸林)이며 넓이 12ha이상에 달한다. 신라 진성여왕(眞聖女王) 때 최고운(崔孤雲) 선생이 함양태수로 오셔서 조성한 숲이라고 한다. 최선생이 함양태수로 오셨을 때 지금의 위천수는 함양읍이 중앙을 흐르며 매년 홍수의 해가 심하였기 때문에 최태수께서는 농민의 동원하여 뚝을 쌓고 강물을 지금의 위치로

둘림과 동시에 똑을 따라서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 처음에는 이 숲을 대관림(大館林)이라고 이름지어 잘 보호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홍수의 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중앙부의 숲이 파괴됨으로서 현재의 상림(上林)과 하림(下林)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page 36 그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현재에 있어서는 함양읍을 예쁘게 장식할 수 있는 풍치림인 동시에 방풍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삼림 옆을 흐르는 위천은 상류지역의 식생 파괴로 인하여 수량이 줄어들었으나 이 숲은 함양읍민의 훌륭한 휴양처로 되었다.

제 82호 무안 청천리의 줄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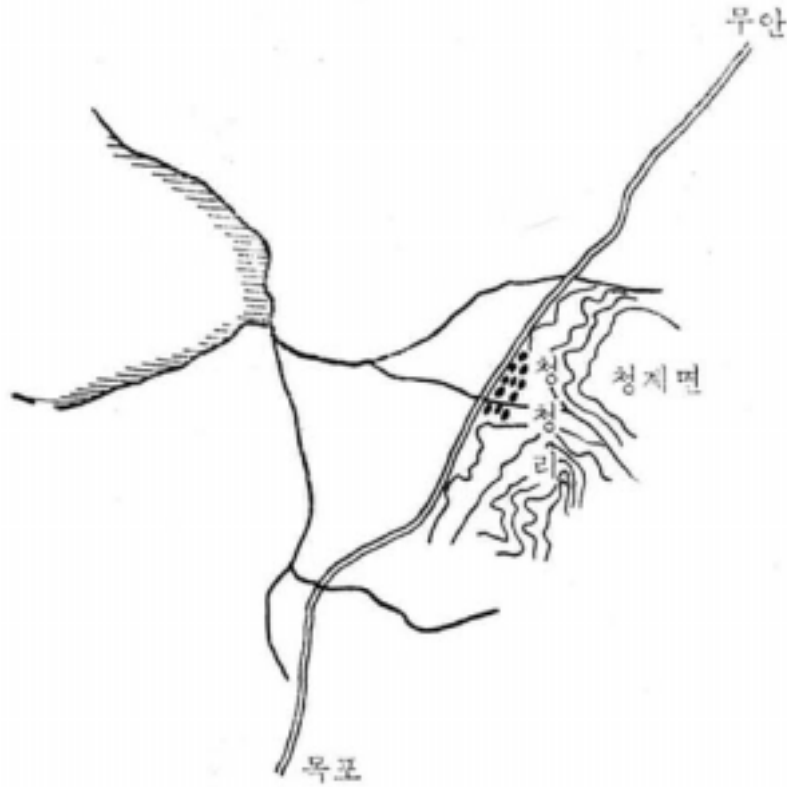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362번지

소유 : 국유

현황 : 청천리 마을앞 국도변에 한 줄로 서있는 줄나무<가로수(街路樹)>이며 팽나무가 66주 개서어나무 20주, 느티나무 3주로서 모두 89주이며 수령은 400년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전설 : 500년 전 이곳으로 낙향한 이곳 배씨(裴氏)의 선조께서 지형을 살핀 다음 동리 앞이 터져서 허전함을 막기 위하여 심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나무

의 잎을 따거나 가지를 꺾으면 중병에 걸린다는 교훈을 남김으로서 현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것이다. 팽나무의 열매는 달콤하여서 먹을 수 있으나 어린 아이들은 이것까지도 따지 않는다고 한다.



위 치 도

<page 37 그림>



무안 청천리의 줄나무

주민에게 주는 영향 : 마을앞이 서쪽바다를 향하여 부채꼴로 터져 있으므로 바다에서 불어 오는 세찬 바람을 막아서 농작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부락 자체를 잘 감싸주는 방풍림임을 잘 인식하여 왔었으나 근자에 와서는 도로변에 한 줄로 서있는 가로수의 성격으로 되어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놀이터가 됨으로서 나무들이 점차 노쇠되어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

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임종의 어부림적 효과(魚付林的 效果)

현재 지정되어있는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시초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중요성에 치중하여 다루어졌으며 농수산물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임종을 살펴볼 때 생물학적인 견해에서보다는 수산업적인 발전과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함을 느끼는 것이 있다. 바닷가에 위치한 임종은 보면 주위 환경이 메마르고 험벗은 속에서도 혼자서 윤기를 뿜으면서 멀리 그림자를 던짐으로서 고기떼가 모여들도록 만들고 있는 사실은 바닷가나 섬에서 사는 어민들을 직접 도와주고 있다. 간접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부들이 이 숲에서 어느 정도의 위안과 힘을 얻고 있는 사실 등이다.

풍어의 치성을 드리고 있는 마량리의 동백나무숲, 주도, 목도, 외연도 섬섬 및 가막섬의 상록수림과 안민도의 모감주나무 군락은 훌륭한 어부림이며 미조리와 예송리의 상록수림은 또한 훌륭한 방풍림이다.

제 28호 주도의 상록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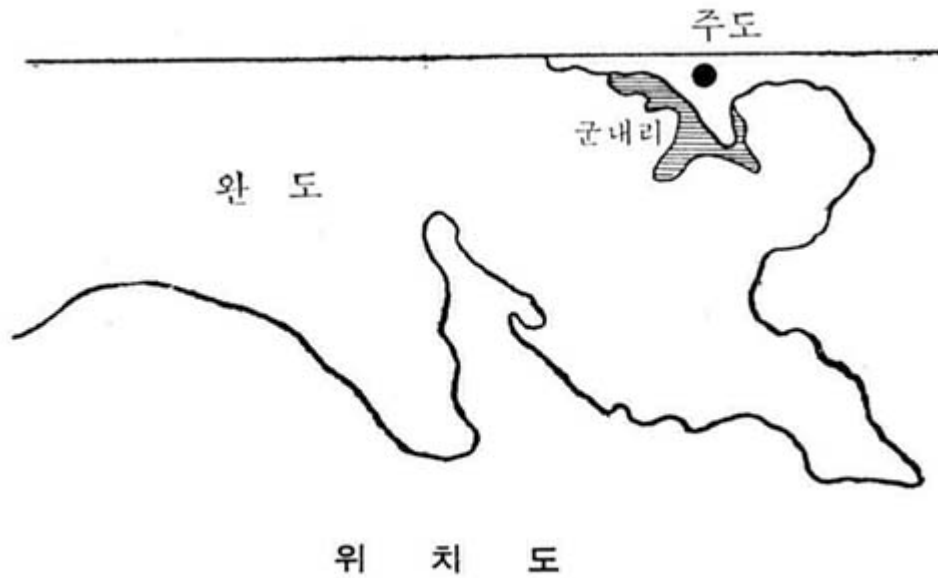
소재지 : 전남 완도군 완도면 군내리 산 259번지

소유 : 국유

임상 : 완도 군청에 있는 군내리 바로 앞에 놓여 있으며 면적이 1.75ha 이고 중앙에 당이 있으므로 바로 당산림으로서 유지되어 왔다.

100여종의 식물의 무성한 중에 상록수로서는 모밀잣밤나무, 붉가시나무, 돈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사스레피나무, 가마귀쪽나무, 팡나무, 다정큼나무, 감탕나무 및 육박나무 등이 여기 저기 있고 그 사이에 송악, 멸굴, 마삭덩굴, 모람 및 불레나무 등이 이리저리 엉키어 있고 자금우가 지면을 때로 덮고 있다. 낙엽수 중에서 희귀한 종류로서는 황철나무와 삼색싸리 등이며 그 밑에는 활짝 자란 고란초가 더욱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주민에게 주는 영향 : 군소재지의 바로 앞에 놓여 있으므로 관광객과 소풍객이 들끓게되어 임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 좋은 휴양처이기는 하지만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있는 고장의 중요한 어부림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제 29호 미조리의 상록수림
위치도

제 29호 미조리의 상록수림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산 121번지

소유 : 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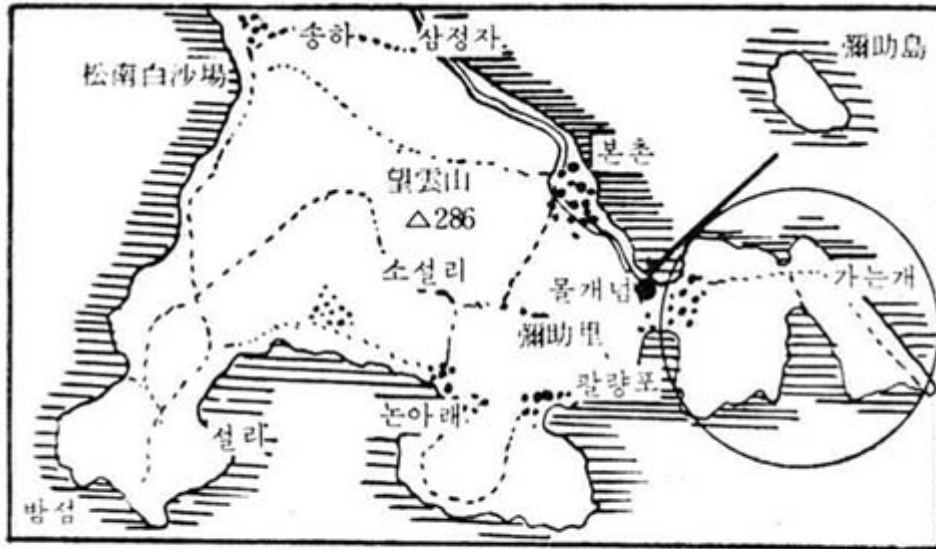
입상 : 상록수림이란 잘못 붙인 것 같다. 아마 시초에는 상록수가 보다 많았겠지만 지금은 낙엽수가 완전히 이를 제압하고 있다.

상록수로서는 후박나무, 육박나무, 생달나무, 무른나무, 감탕나무, 식나무, 빗죽이나무, 돈나무, 사스레피나무, 광나무, 불레나무와 모밀잣밤나무가 표본처럼 자라는 가운데 모람과 송악이 이리저리 기어 올라가고 땅위에 자금우가 약간 보인다. 물론 이 근처에는 이러한 종류도 흔히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있으니 상록수림이라고 하여도 어색하지 않을런지 모른다. 낙엽수 중에는 이팝나무도 자라고 있다.

지정사유 : 상록수림

전설 : 이 숲이 우거지면 이 마을에서 인제가 나온다고 한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상록수림이라고 되어 있으나 중요한 방풍림이다. 주위의 산이 험했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어부림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숲을 잘 가꾸기 위하여 전하여지는 전설도 아랑곳없이 주민의 휴양처가 되어 파피일로에 서 있다.



제 65호 목도의 상록수림

<page 38 그림>

제 65호 목도의 상록수림

소재지 : 경남 울주군 온산면 방도리 산 13번지

소유 : 국유

입상 : 상록수림이하고 하지만 상록수가 우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넓이 1.5ha인 섬의 중앙에 약간 빈터가 있고 눈비수리가 여기저기 잔디처럼 깔려있다. 한쪽 모서리에 반야암이 있고 그 앞에 심어 놓은 벗나무들이 있다. 상록수로서 동백나무, 후박나무, 사철나무, 불레나무와 다정큼나무가 있고 곰솔과 편백이 상록활엽수의 푸른빛을 더한층 푸르게 만들며 송악이 빈틈을 메우고 있다.

낙엽활엽수로서 벗나무, 팽나무, 자귀나무, 구기자나무, 쥐똥나무, 쫄레나무, 두릅나무, 개산초나무와 노린재나무가 있으며 칙, 계요등, 인동덩굴, 개머루, 땡땡이 덩굴, 명석딸기, 등, 청가시덩굴, 닭쟁이덩굴 및 줄딸기 등이 이리저리 뻗어간다. 심어놓은 감나무와 아까시나무도 군데군데 보인다.

지정사유 : 상록수림

전설 : 육지에서 300m쯤 떨어진 작은 섬이며 그 모양이 사람의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눈섬 <목도(目島)>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동백꽃이 많다고 해서 동백섬이라고도 하였고 신라시절에는 화살을 만들 이대를 심었다고 해서 대섬이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동백꽃, 벚꽃 및 등나무꽃 등이 차례차례로 피어 좋은 관광지로 되어있음은 일반인이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섬이 훌륭한 어부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전연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제 136호 외연도 (外煙島)의 상록수림

소재지 : 충남 보령군 별천면 외연도리 산 293번지

소유 : 공유

임상 : 부락 뒤의 능선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넓이 3.3ha로서 중앙에 성황당이 있다. 성황림인 까닭에 숲의 옛 모습이 그대로 잘 보전되어 왔으며 후박나무, 동백나무, 식나무, 먼나무, 참식나무, 센달나무, 굴거리나무, 사철나무, 무른나무, 돈나무와 붉가시나무등의 커다란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불레나무, 송악, 마삭줄 및 방기 등이 여기저기 엉키어 있고 밑에는 자그마한 자금우가 있다. 낙엽활엽수로는 팽나무, 찰피나무, 푸조나무, 자귀나무, 고로쇠나무, 구지뽕나무, 산뽕나무, 상수리, 민거귀나무, 자작나무, 황칠나무등의 큰 나무와 딱총나무, 산초나무, 누리장나무, 닥나무, 꾸지나무, 짚레, 참빗살나무, 두릅나무, 붉나무, 초피나무, 예덕나무, 가마귀밥여름나무, 회나무, 실거리나무, 때죽나무, 개산초나무, 광대싸리, 병아리꽃나무, 화살나무, 새비나무, 털갈매나무, 쥐똥나무 사이 사이에 담쟁이덩굴, 국화으아리, 사위질빵, 계요등, 칩, 왕머루, 새머루, 청미래덩굴, 노박덩굴 및 땃땃이덩굴이 이리저리 엉켜있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성황림으로서 보전되어 왔으며 주민의 생업이 어업이므로 이 숲을 바라보며 살고있는 주민들은 이 숲을 등지고 바다로 떠나가고 이 숲을 향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하여 왔다.

이 숲의 무성한 모습은 어부림으로서 훌륭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들의 생업이 어업이지만 어부림 보다는 성황림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외연도



외연도의 상록수림

제 172호 가막섬의 상록수림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마량리 산 191번지

소유 : 국유

지정사유 : 상록수림

입상 : 후박나무의 순림(純林)에 가까운 상록수림이며 가슴높이의 둘레 85cm내외, 높이 12m내외의 후박나무가 임관의 윗층을 차지하고 있다. 바닷가에 따라서 돈나무가 자라고 다정큼나무, 생달나무, 참식나무, 광나무, 사철나무, 사스레피나무, 감탕나무와 더불어 불레나무, 마삭줄, 멀꿀 및 송악 등이 때로 영키면서 자라고 밑에는 자금우가 차지하고 있다.



<page 40 그림>

낙엽활엽수로서 상수리, 굴참, 팽나무, 구지뽕나무, 푸조나무, 쥐똥나무, 초피나무, 개산초나무, 산딸, 검양웃나무, 예덕나무, 자귀나무, 장구밥나무와 더불어 배풍등, 산딸기, 노박덩굴 쥘레, 수리딸, 계요등, 청가시덩굴, 청미래덩굴, 담쟁이덩굴, 개머루, 땃덩이덩굴이 이리저리 엉키어 있다.

제 138호 안민도의 모감주나무 군락

소재지 : 충남 서산군 안민면 승인리 1315번지

소유 : 국유 및 사유

임상 : 모감주나무 (*Koelreuteria paniculata Maximowicz*)는 내륙지방에서도 자라지만 바닷가에 군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식물군락으로서 지정된 것이다. 바로 바닷가에 방파제 (防波堤)처럼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식물지리학적(植物地理學的)인 주요한 자료이지만 어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어부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갈참나무, 털고로쇠 등이 섞여있으나 모감주나무가 제일 많이 나타난다. 넓이 30ha 정도로서 바로 바닷가의 자갈터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이 마을의 방풍림이 되어 있다. 나무의 키는 작으나 충분한 넓이의 임층으로서 바닷바람을 막아주며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어 휴식처가 되어왔고 멀리 바다로 비쳐지는 그림자는 고기떼를 유인할 만하다.

지정사유 : 식물지리학적 연구자료

지정 연월일 : 년 월 일



<page 40 그림>

이밖에도 규모는 적으나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자라는 후박나무 군락은 제 12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3그루의 후박나무가 바닷가 언덕 위에 우뚝 서서 한쪽으로는 농작물을 바닷바람에서부터 보호해 줌과 동시에 한쪽으로는 멀리 그림자를 바닷가에 던져 고기떼가 숨을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식물학자에게는 이 나무가 저절로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을 가르켜 주고 있는 것은 천연기념물 지정 본래의 목적이었다.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동 산 70번지에 있는 통구미(通九味)의 향나무 자생지와 대하동 산 99번지에서 자라는 대풍감(待風檻)의 향나무 자생지 등도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또는 관광자원으로서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이 사실이며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포 앞 바다에 있는 섬섬의 우거진 숲은 천연기념물보다 귀중한 어부림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제 169호 마량리의 동백나무숲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 14번지

소유 : 공유

넓이 : 0.8 ha

식생 : 높이 2m 내외의 동백나무가 바람에 쓸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전설 : 이 꽃을 잘 가꾸면 이 부락에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부락민과의 관계 : 마량리 사람들은 음력 정월에 풍어(豊魚)의 치성을 여기서 들인다고 한다. 풍어를 바라는 치성은 이 숲을 잘 가꾸도록 전환할 때가 왔다고 본다.